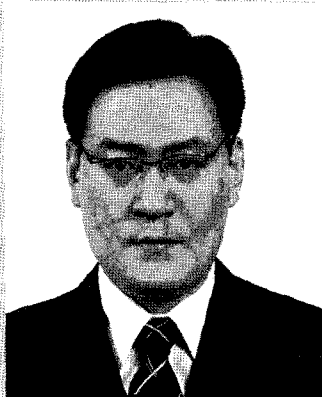


건설팅통한 저탄소 패키징 개발 · 보급으로 발전 기대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모하는데 일조하고 싶어...



김 익
스마트에코(주) 대표이사

‘지속가능한 경영’ ‘지속가능한 패키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 전반을 비롯해 패키징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련 기술들에 대한 건설팅을 목적으로 창립된 스마트에코(주) 김익 대표이사에게 스마트에코(주)의 사업 방향과 함께 패키징 업계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스마트에코(주)의 ‘SMaRT’는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lated Technologies의 첫 글자로 구성된 합성어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관련 기술들에 대한 건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경영 기법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탄소라벨링 인증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 CDM,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술건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김익 대표이사는 “이제는 환경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었고,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환경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업들의 필수 성장코드”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경영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는 일이 무의미할 터. 현재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대응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현실

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김 대표이사는 환경경영이라는 개념이 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각종 연구와 제도운영 경험을 토대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에 제공, 이들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스마트에코(주)를 창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건국대학교에서 1994년부터 환경경영 및 전과정평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 2004년도에 동일한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지금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전신인 환경마크협회에서 2011년 4월까지 환경성적표지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2009년도에는 환경성적표지제도에 대한 운영경험을 토대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에 탄소라벨링제도를 출범시켜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우리의 제도를 알리는데 일조, 2008년 12월에는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활동에도 전념해 2004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경영 분과인 ISO TC207의 환경라벨링과 전과정평가 분과 한국대표로, 2009년부터는 기후변화 분과에 대한 한국대표로도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익 대표이사는 “지금까지의 제품과 연계된 에너지 정책은 자동차와 에어컨과 같은 사용과정에서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제품에 치중되어 왔지만 EU의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소비제품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든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피력했다.

“과거에는 에너지소비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정책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기후변화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포장용기 제품을 포함한 비내구재 제품 등에 대한 온실가스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아마도 패키징 산업일 것입니다.”

김 대표이사는 향후 패키징 제조기업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품질을 유지하면서 패키징을 경량화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하면 친환경소재를 사용한 패키징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패키징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이념에 지속가능경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지속가능경영이라는 기업경영을 토대로 저탄소 기술개발을 통해 저탄소 패키징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패키징 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이라고 피력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 패키징 업계에서는 저탄소기술을 적용한 패키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젠 일반화된 사실일 터. 그



▲ 스마트에코(주) 로고

Interview

런데 대부분의 패키징 업체는 소자본의 중소기업인 것이 현실이다.

김익 대표이사는 “이들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서 중지를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패키징 업계가 비용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며 “어느 때보다 패키징 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그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유색 패키징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언이 필요하며 지속가능 패키징에 대한 정책이 하루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 녹색경영 및 녹색기술, 기후변화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가 많이 생겨고 있는 현재 스마트에코(주)는 타회사와의 차별화를 추진하는데 주력,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한 발 앞서 관련 기술과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미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익 대표이사는 약 10여년간 환경경영 분과에 대한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다니면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경험을 토대로 다가올 새로운

트렌드를 여러 산업계에 전파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모하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익 대표이사는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환경정책들은 바로 지구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하면서 “지구의 존재가치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고, 멀리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저희 스마트에코는 2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회사이름처럼 똑똑하게 우리 패키징 기업과 함께 지구의 존재가치를 찾아 멀리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지속가능한 경영 컨설팅을 토대로 스마트한 기업, 스마트한 환경정책을 실천하며 업계 발전을 이끌어 나갈 스마트에코(주)의 김익 대표이사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KOL]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